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전망

KIEP 북경사무소(mspark@kiep.go.kr, Tel: 86-10-8497-2870)

차 례 ●●●

1. 해외직접투자 정책의 추진과정
2.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문제점
3. 중국 전문가 평가와 전망

주요 내용 ●●●

- ▣ 개혁개방 이후 지금까지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5단계 과정을 거치며 확대되었으며, 1979년 8월 국무원이 중국기업의 해외기업 설립허가를 공포하면서 본격화되었음.

 - 초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신규투자(Green-Field)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투자효과가 빠르고 시장과 기술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인수합병(M&A) 방식이 증가하고 있음.
 - 그동안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해외직접투자가 점차 민간기업 주도의 투자로 변화되면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여전히 아시아에 대한 투자가 압도적이지만, 미국과 유럽 등지에 대한 투자건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서 발표한 '2014세계투자보고서(2014年世界投资报告)'에 따르면, 2013년 전체 해외직접투자액이 1,41조 달러로 2013년 말 기준 투자누계 총액이 26.31조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점유율이 세계 3위를 기록함.

 - 2013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은 1,078.4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2.8%성장, 그중 신규투자가 307.3억 달러로 28.5%를 차지하였고, 이윤재투자는 383.2억 달러로 35.5%, 기타투자는 387.9억 달러로 36%를 차지함.
- ▣ 중국정부는 '저우추취(走出去)' 전략을 적극 시행하여 비교우위를 확보한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장려하고, 국제적인 경제기술 합작분야를 확대하여, 기업의 다국적 경영을 통한 글로벌화 촉진을 지원하고 있음.

 - 향후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중국기업의 글로벌화 및 해외시장 점유 확대 등을 목표로 추진되는 해외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1. 해외직접투자 정책의 추진과정

- 개혁개방 이후 지금까지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5단계 과정을 거치며 확대되었음.
- 1994년 개혁개방 정책시행 이전 30년 동안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가 규모는 매우 작았으며, 해외시장 개척과 교역확대를 위해 도쿄나 파리, 런던 등과 같은 국제 대도시에 해외지사 또는 무역회사 및 금융관련 기업을 설립, 운영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음.
- 초기 중국의 해외투자는 대부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항구나 대도시에 집중되어 소규모로 진행되었으며, 1979년 8월 국무원이 15개 항목의 경제개혁 조치 발표(13번째 항목에서 중국기업의 해외기업 설립허가를 공포) 후 본격화되었음.

가. 시기별 특징에 따른 추진과정

- (1979~84년) 초기탐색단계로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중일기업이 해외직접투자가 서서히 확대되기 시작함.
 - 이 시기에 기업의 해외투자 목적은 외국의 첨단선진기술 도입 및 중국 내 부족한 자원을 해외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것임.
 - 1979년 11월 베이징 우이상업서비스 회사(北京市友谊商业服务总公司)와 일본의 도쿄환일상사주식회사(东京丸一商事株式会社)가 합자로 도쿄에 징허(京和)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은 중국이 개혁개방 실행 후 해외에 설립한 최초 합자경영기업임.
 - 1979년부터 1984년까지 6년 동안 중국이 허가한 비(非)무역형 해외기업 수는 모두 113개로, 중국 측 투자액은 약 1.2억 달러를 기록, 연평균 0.2억 달러가 투자되어 19개 해외직접투자기업을 설립함.
 - 이 시기에 중국은 주로 요식업과 건설도급, 컨설턴트와 서비스업, 항공해운 및 금융보험으로 40여 개 국가와 지역에 투자하였으나, 대부분의 투자금액은 홍콩과 마카오에 집중됨.
 - 외국진출의 초기탐색단계로 투자형식은 합자, 합작 형태 위주, 투자목적은 저비용 제조업의 이전지 선택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시기임.
- (1985~90년) 초기발전단계로 이 시기에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으나 1989년에 경기과열로 인한 경제 조정정책의 영향을 받아 뚜렷한 감소세를 보임.
 - 해외직접투자에 참여하는 기업이 다양화되면서, 무역은 물론 공업, 물류, 과학기술 및 금융관련 기업들도 해외직접투자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음.

- 1985년부터 1990년까지 6년 동안 중국이 허가한 비(非)무역형 해외기업 수는 모두 791개에 달했으며, 중국 측 투자액은 약 8.877억 달러를 기록, 연평균 1.47억 달러를 투자하여 131개씩 해외직접투자 기업을 설립함.
 - 이 시기에 중국은 90여 개 국가와 지역에 해외직접투자 규모와 영역을 확장하는 시기였으며 기존에 시행해왔던 서비스업에서 자원개발과, 가공, 의료위생 및 교통 등 20여 개의 산업으로 넓힘.
- (1991~96년) 조정발전단계로 1993년부터 중국정부는 긴축재정과 구조조정을 시행,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발전 속도가 느려지고 투자 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함.
- 1991년부터 1996년까지 6년 동안 중국이 허가한 비(非)무역형 해외기업 수는 모두 1,184개에 달했으며, 중국 측 투자액은 약 11.4억 달러를 기록, 연평균 1.85억 달러를 투자하여, 197개씩 해외직접투자 기업을 설립함.
 - 이 시기 중국경제는 외국 자본과 외국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노동집약형 제조품의 수출을 확대하고, 외자를 이용한 국내 경기 건설에 초점을 맞추는 ‘인진라이(引进来)’ 정책이 시행됨.
 - 한편 중국의 해외투자는 이전의 합자투자(合资投资), 합작투자(合作投资)에서 독자투자(独资投资) 비중이 증가하고, 합자에서도 과반수 이상의 지분 확보로 주도권 확보를 위한 투자가 주를 이룬 시기로 볼 수 있음.
 - 이 시기 중국은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법률을 수정하기 시작했고, 해외투자액을 확대하는 등 ‘저우추취(走出去)’ 전략의 틀이 만들어짐.
- (1997~2003년) 과도발전단계로 20여 년에 걸친 개혁개방 동안 선진기술, 자본 및 관리 경험을 통해 중국경제는 급격히 발전하였고, 산업 경쟁력도 크게 증대함.
-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중국정부는 산업구조 조정과 국내 기술 및 기업의 해외이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저우추취(走出去)’ 전략이 제시됨.
 - ‘저우추취(走出去)’ 전략은 비교우위를 확보한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장려하고 국제적인 경제기술 합작분야를 확대, 해외에서의 자원개발 지원확대 및 R&D기관의 설립 장려 등 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함.
 - 1997년부터 2003년까지 7년 동안 중국이 허가한 비(非)무역형 해외기업 수는 모두 1,979개에 달했으며, 중국 측 투자액은 약 61.5억 달러를 기록, 연평균 8.78억 달러를 투자하여, 282개씩 해외직접투자 기업을 설립함.
- (2004~현재) 전면적 발전단계로 중국이 WTO에 가입 후 해외투자영역을 확대하고, 외자 유입 조건을 완화시킴.
- 현재까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84개 국가와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누적 금액은 8.2조 달러를

기록함.

- 업종별로 제조업이 31.8%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도·소매유통업 19.4%, 서비스업 15.1%, 건축업 7%, 채광업 5.4%, 농림목어업 4.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그동안 신규투자(Green-Field)방식으로 추진되어왔으나 점차 M&A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음.
- 2013년 기준 M&A방식과 신규투자(Green-Field)방식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2.2%, 27.8%를 차지하면서 M&A 비중이 대폭 확대되었음.

표 1.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시기별 특징에 따른 추진 과정

| 시기 | 특징 | 주요 내용 |
|------------|---------|-------------------------|
| 1979~84년 | 초기탐색단계 | 개혁개방 이후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되는 시기 |
| 1985~90년 | 초기발전단계 | 해외직접투자의 규모와 영역을 확장하는 시기 |
| 1991~96년 | 조정발전단계 | 인진라이(引进来) 정책 시행 |
| 1997~2003년 | 과도발전단계 | 저우추취(走出去) 정책 시행 |
| 2004~현재 | 전면적발전단계 | 신규투자방식에서 M&A방식으로 시행 |

자료: 董彦岭, 「我国境外投资促进体制机制演变分析」, pp. 34~40 재정리.

나. 해외투자 주요 사례

- 중국의 대표적 가전업체인 하이얼(海尔)은 적극적인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중국에서 제일 가치 있는 브랜드로 성장, 1984년 이후 연평균 70% 성장하는 가전시장의 대표적 글로벌 기업임.
- 디자인, 제조, 마케팅, 서비스 분야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끊임없이 신제품을 개발하는 국제화 전략의 성공으로 세계에서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기업으로 주목 받고 있음.
- 1990년대 중후반 중국의 가전업체는 내수시장 위축과 공급과잉 문제에 직면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수출쿼터를 비롯한 각종 보호조치 등 무역장벽의 제약을 받음.
- 이로 인해 1990년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현지 기업과 합작하는 방식으로 공장을 설립, 기술과 설비 위주로 작은 규모의 투자를 통한 단일제품 조립, 생산을 해오는 과정을 거치게 됨.
- 결과적으로 2000년까지 하이얼(海尔)은 투자대상국의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지만 수출을 포함한 경영성과는 크게 달성하지 못함.

- 하이얼(海尔)의 해외직접투자 전략은 ‘삼위일체현지화(三位一体本土化)’로 설계, 생산, 판매를 모두 현지에서 시행하면서 합작투자 및 파키스탄, 미국, 중동, 태국 등에 공업단지를 설립하면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해옴.
- 하이얼(海尔)은 2013년 현재까지 160개 국가에 5만 8,800개의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해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61개 국가에 해외무역회사, 8개의 R&D연구개발센터, 29개의 제조시설, 16개의 공업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함.
- 2010년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Euromonitor International)로부터 백색가전 브랜드 1위 기업으로 선정, 같은 해 미국 ‘Forbes’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및 ‘Newsweek’ 10대 혁신기업으로 선정됨.

■ 2010년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Bloomberg Business Week)에 세계 50대 혁신기업 중 30위를 기록한 레노버(联想)는 현재 세계 66개 국가에 해외지사와 중국 베이징(北京), 일본 도쿄(东京), 미국 롤리(Raleigh)에 R&D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04년 기준, 매출액 140억 달러, 판매량 1,400만 대를 달성해 Dell, HP에 이어 세계 3대 컴퓨터 메이커로 부상하였고, 중국 내에서 AOL, Intel, MS 등과의 합작 및 협력 프로젝트를 통하여 기술, 제품, 시장 등 여러 방면에서 국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주력함.
- 2004년 12월 IBM PC사업부문 및 R&D센터와 세계 판매망 서비스센터 등을 인수하면서 강력한 국제 브랜드 인수와 자체 브랜드 육성 및 유통망을 구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레노버(联想)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축소시키는 계기를 만들게 됨.
- 국제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얻음과 동시에 다양한 고객층과 판매망, 인력 및 최신기술과 효율성 높은 운영능력 등의 핵심 역량을 구축함.
- 레노버(联想)는 기술력 확보 차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기 위해 브랜드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국 IT산업의 글로벌 인지도를 확보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중국 경제발전에서 큰 도움을 준 점, 최근 첨단 제조업 및 첨단과학 산업이 발달한 점을 고려할 때 그동안의 경험을 통한 위험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성공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
- 이처럼 레노버(联想)는 2013년에 미국 IT분야 리서치 전문기관인 가트너(Gartner)가 발표한 전 세계 PC시장 1위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 329위를 기록함.
- 2014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기업 컴퓨터 부문 3위를 기록하는 등 중국 최대의 다국적 민영 기업으로 발전함.

■ 중앙 국유기업인 중국해양석유총공사(中国海洋石油总公司 : CNOOC)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해외 자원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음.

- 중국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거듭하면서 중국 내에서 석유, 천연가스, 유색금속 등의 지하자원의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자원의 매장량은 수요에 부족하고, 이에 대한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

어지지 못하면 전체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처해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측면뿐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기업들의 국내의 자원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다각적인 자원의외교를 펼침.
- 세계적 차원에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중국은 에너지 순수입국으로 전환되면서 에너지 및 천연자원 확보를 위한 자원 개발형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건당 투자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임.
- 1982년 베이징(北京)에서 설립한 CNOOC는 대외협력과 자체경영을 병행하는 원칙으로 발전, 2001년 2월에 뉴욕(纽约)과 홍콩(香港)에 상장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해외 M&A를 시작함.
- 이어 2002년에는 인도네시아에 보유하고 있던 5개 유전을 스페인 Repsol-YPE사에 인수받았고, 이후 CNOOC는 인도네시아에서 최대의 해상석유 생산업체로 부상함.
- 또한 2005년에 캐나다가 카자흐스탄에 보유하고 있던 Petro-Kazakhstan을 인수하여 당시 중국기업에 의한 해외기업 인수 중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기도 함.
- 2010년 10월 21억 6,000만 달러를 투입해 미국 제2대 천연가스 생산기업인 체사피크 에너지사(Chesapeake Energy Corp.)의 혈암층 프로젝트 지분을 매입하였으며, 2012년에는 151억 달러를 투자해 캐나다의 벅슨을 인수하여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M&A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

■ 반면 중국 가전업체인 TCL의 해외진출은 중국의 글로벌 전략 실패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로 적지않게 인하여 해외사업을 철수한 바 있음.

- TCL은 광둥성 후이저우(惠州)에 본사를 둔 중국 가전업체로 1981년 국유기업으로 출발하여, 1985년 홍콩 자본과 합병하고, 가전제품을 비롯하여 IT제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생산하고 있음.
- TCL은 2003년 프랑스 알카텔(Alcatel)의 휴대폰 사업부 인수를 시작으로, 2004년 국영기업인 톰슨(Thomson)을 인수합병하면서 유럽과 북미시장에 진출함.
- TCL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법인 신설, 해외기업 M&A 등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으나, 잇단 사업실적 저조로 합작을 중단하고 유럽시장에서 사업을 철수함.
- 2003년 프랑스 알카텔과 합병 후 북미와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제조원가가 상승되어 경영상태가 악화되었음.
- 이에 TCL은 2007년 폴란드 공장을 매각하고, 7개의 유럽 사무소 중 5개 사무소와 6개 판매자회사를 폐쇄함.

2.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문제점

가. 현황

- 2013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은 1,078.4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2.8% 성장, 그중 신규투자자가 307.3억 달러로 28.5%를 차지하였고, 이윤재투자자는 383.2억 달러로 35.5%, 기타투자자는 387.9억 달러로 36%를 차지함.
-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가 발표한 ‘2014세계투자보고서(2014年世界投资报告)’에 따르면, 2013년 전체 해외직접투자액이 1.41조 달러로 2013년 말 기준 투자누계 총액 26.31조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점유율은 세계 3위를 기록함.
- 2013년 기준 중국의 비(非)금융 해외직접투자자는 927.4억 달러로 전년대비 19.3% 증가함.
 - 비금융 해외직접투자자의 투자누계액은 5,434억 달러로 전체 82.3%를 차지함.
- 2013년 기준 중국의 금융 해외직접투자자는 151억 달러로 투자누계 총액 1,170.8억 달러를 기록함.
 - 화폐금융 서비스업의 해외직접투자 60.6%, 보험업 6.4%, 증권업 3.7%, 기타 금융업 29.3%를 차지함.

표 2.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2013)

(단위: 억 달러, %)

| 분류 | 투자액 | | | 투자누계액 | |
|--------|---------|------|-------|---------|-------|
| | 금액 | 증가율 | 비중 | 금액 | 비중 |
| 금융 | 151.0 | 50.0 | 14.0 | 1,170.8 | 17.7 |
| 비(非)금융 | 927.4 | 19.3 | 86.0 | 5,434.0 | 82.3 |
| 합계 | 1,078.4 | 22.8 | 100.0 | 6,604.8 | 100.0 |

자료: 『2013年度中国对外直接投资统计公报』(2014年9月), 「中国统计出版社」, pp. 4 재정리.

- 2013년 해외직접투자액은 1,078.4억 달러이며,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이루어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의 누적액은 6,604.8억 달러임.
-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은 연평균 43.01%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5년에는 전년대비 122.6%를 증가하여, 최대 증가율을 기록함.

표 3.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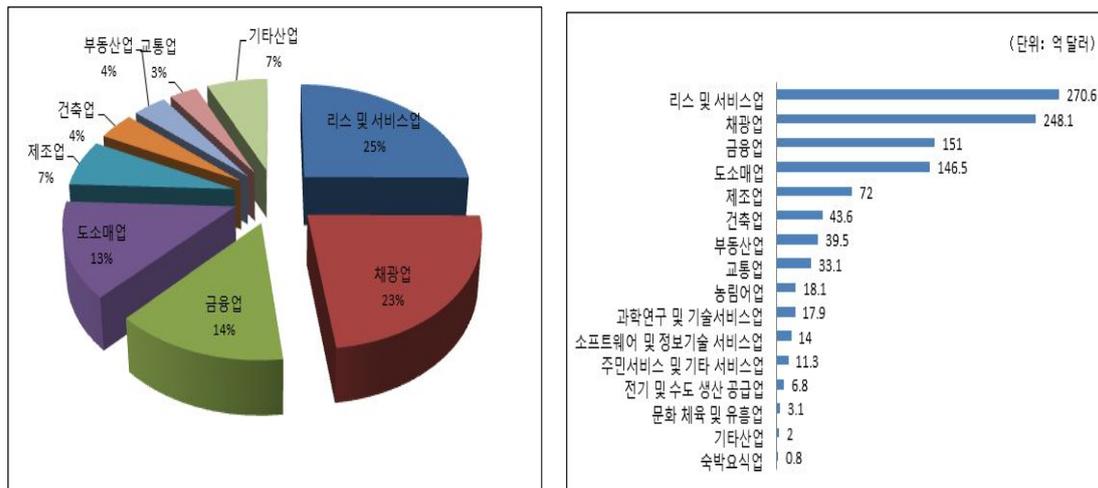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

| 년도 | 투자액 | | 투자누계 총액 |
|------|---------|-------|---------|
| | 금액 | 증가율 | |
| 2002 | 27.0 | - | 299.0 |
| 2003 | 28.5 | 5.6 | 322.0 |
| 2004 | 55.0 | 93.0 | 448.0 |
| 2005 | 122.6 | 122.9 | 572.0 |
| 2006 | 211.6 | 43.8 | 906.3 |
| 2007 | 265.1 | 25.3 | 1,179.1 |
| 2008 | 559.1 | 110.9 | 1,839.7 |
| 2009 | 565.3 | 1.1 | 2,457.5 |
| 2010 | 688.1 | 21.7 | 3,172.1 |
| 2011 | 746.5 | 8.5 | 4,247.8 |
| 2012 | 878.0 | 17.6 | 5,319.4 |
| 2013 | 1,078.4 | 22.8 | 6,604.8 |

자료: 『2013年度中国对外直接投资统计公报』(2014년9월), 『中国统计出版社』, pp. 6 재정리.

- 산업별 비중은 리스 및 서비스업, 채광업, 금융업, 도소매업, 제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리스 및 서비스업과 채광업이 50%를 차지할 정도로 투자가 집중되어 있음.
- 2013년 기준 리스 및 서비스업이 25%(270.6억 달러), 채광업 23%(248.1억 달러), 금융업 14%(151억 달러)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그림 1 참고).
- 최근 부동산의 해외직접투자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년대비 9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업 34.5%, 농어업 24.1%, 연구 및 기술서비스업 2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주요 산업별 현황(2013)



자료: 『2013年度中国对外直接投资统计公报』(2014년9월), 『中国统计出版社』, pp. 10-11 재정리.

나. 특징

- 최근 중국의 해외투자는 투자효과가 빠르고 시장과 기술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M&A방식¹⁾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초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대부분 신규투자(Green-Field)²⁾로 이루어졌으며, 단독투자보다는 합작투자의 위주였음.
 - 하지만 최근 선진기술과 경영기법을 한꺼번에 배우는 이점이 있는 M&A방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2013년 중국 비(非)금융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은 901.6억 달러이며, 이 중 M&A방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는 529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 자원획득과 선진기술 및 브랜드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투자에서 주로 M&A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음.
- 과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신규투자(Green-Field)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투자효과가 빠른 M&A방식이 늘어나면서 M&A 금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채광업이 64.7%(342.3억 달러)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2013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M&A 금액은 2013년 529.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1.9% 증가함(표 4 참고).
 - 업종별로는 채광업이 64.7%(342.3억 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제조업 13.8%(73.2달러), 부동산업 5.8%(30.8달러) 순으로 나타남(표 5 참고).

표 4. 중국의 해외 M&A 추이(2004~13년)

(단위: 억 달러, %)

| 연도 | M&A금액 | 증가율 | 비중 |
|------|-------|-------|------|
| 2004 | 30.0 | - | 54.5 |
| 2005 | 65.0 | 116.7 | 53.0 |
| 2006 | 82.5 | 26.9 | 39.0 |
| 2007 | 63.0 | -23.6 | 23.8 |
| 2008 | 302.0 | 379.4 | 54.0 |
| 2009 | 192.0 | -36.4 | 34.0 |
| 2010 | 297.0 | 54.7 | 43.2 |
| 2011 | 272.0 | -8.4 | 36.4 |
| 2012 | 434.0 | 59.6 | 31.4 |
| 2013 | 529.0 | 21.9 | 31.3 |

자료: 『2013年度中国对外直接投资统计公报』(2014년9월), 『中国统计出版社』, pp. 8 재정리.

- 1) Merges & Acquisitions, 외부경영자원 활용의 한 방법으로 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뜻함.
- 2) 국외 진출 기업이 직접 새롭게 생산라인을 만드는 등의 해외직접투자의 일종

표 5. 중국의 업종별 해외 M&A 비중(2013년)

(단위: 개, 억 달러, %)

| 산업 | 기업수 | 실제투자금액 | 비중 |
|-------------------|-----|--------|-------|
| 채광업 | 43 | 342.3 | 64.7 |
| 제조업 | 129 | 73.2 | 13.8 |
| 부동산업 | 13 | 30.8 | 5.8 |
| 리스 및 서비스업 | 46 | 21.9 | 4.1 |
|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 | 23 | 21.9 | 4.1 |
| 도소매업 | 88 | 11.4 | 2.2 |
| 숙박요식업 | 5 | 7.7 | 1.5 |
| 농림어업 | 23 | 5.9 | 1.1 |
| 문화체육 및 유흥업 | 8 | 4.8 | 0.9 |
| 전기 및 수도 생산 공급업 | 11 | 3.5 | 0.7 |
|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스업 | 16 | 3.1 | 0.6 |
| 주민서비스 및 기타서비스업 | 11 | 1.8 | 0.3 |
| 건축업 | 2 | 0.2 | 0.2 |
| 환경 및 공공시설 관리업 | 2 | 0.2 | |
| 금융업 | 1 | 0.2 | |
| 교통업 | 3 | 0.1 | |
| 합계 | 424 | 529 | 100.0 |

자료: 『2013年度中国对外直接投资统计公报』(2014年9月), 「中国统计出版社」, pp. 8 재정리.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에서 M&A 방식으로 홍콩과 싱가포르, 키르기스스탄 등지에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기준 아시아에서 중국기업의 M&A투자는 서비스업, 제조업, 도소매업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 서비스업 등에 이루어짐.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대륙별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중남미 등에서는 자원개발형, 중동지역은 공급계약형,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등 저개발 신흥경제국은 차관개발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2013년 기준 중국기업은 여전히 아시아에 집중적으로 진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로 홍콩, 베트남, 일본, 싱가포르 등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기준 아시아에 진출한 중국기업 수는 14,131개로 55.6%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유럽, 북아메리카에 진출한 중국기업은 각각 3,133개로 12.3%, 3,073개로 12.1% 비중을 차지함.
 - 유럽에 진출한 3,133개 기업은 주로 러시아, 독일,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지에, 북아메리카에 진출한 3,073개 기업은 주로 미국, 캐나다 등지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남.

표 6. 중국의 대륙별 진출기업 수 및 비중(2013)

(단위: 개, %)

| 대륙 | 진출 기업 수 | 비중 |
|--------|---------|------|
| 아시아 | 14,131 | 55.6 |
| 유럽 | 3,133 | 12.3 |
| 북아메리카 | 3,073 | 12.1 |
| 아프리카 | 2,955 | 11.6 |
| 라틴아메리카 | 1,331 | 5.3 |
| 대양주 | 790 | 3.1 |
| 합계 | 25,413 | 100 |

자료: 『2013年度中国对外直接投资统计公报』(2014년9월), 「中国统计出版社」, pp.38 재정리.

■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국유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민간기업의 투자가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3년 기준 해외직접투자 중 국유기업이 55.2%로 여전히 절반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비(非)국유기업 비중이 전년대비 4.6% 증가하여 44.8%를 차지함(그림 3 참고).
- 2013년 중국정부는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적격 국내기관투자자(QDII)³⁾ 취득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투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규제를 강화함.
- 또한 개인투자자의 해외직접투자를 허용하는 적격 국내개인투자제도(QDII2)⁴⁾를 시행할 예정으로 중국의 해외투자는 더욱 활발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 중국 비(非)금융 해외직접투자(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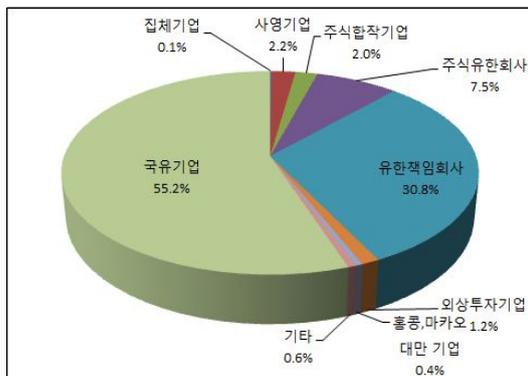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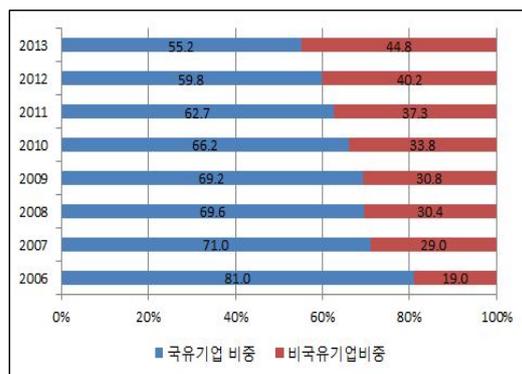


그림 3. 국유기업과 비(非)국유기업 비중(2006~13)



자료: 『2013年度中国对外直接投资统计公报』(2014년9월), 「中国统计出版社」, pp. 24 재정리.

- 3) 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 중국 외환관리 당국으로부터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할 권리를 부여 받은 금융기관을 뜻함. 중국에서는 이 자격을 얻어야 해외주식 시장 투자가 가능함.
- 4) Qualified Domestic Individual Investors, 중국 외환관리 당국으로부터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할 권리를 부여 받은 중국내 개인투자자를 뜻함. 중국에서는 이 자격을 얻어야 해외주식 시장 투자가 가능함.

- 중국정부의 ‘저우추취(走出去)’ 정책의 목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대기업 육성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획득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함.
 - 중국정부는 자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내적으로는 대기업 육성책과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 중국기업들은 기존의 저비용 생산기지 이미지를 벗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인수하여 단기간에 현지시장 석권은 물론 세계 정상까지 도전하고 있음.
- 해외투자를 통해 시장을 개척하여 판로를 확대하면 기업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은 물론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경제구조 조정과 산업 고도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음.
 - 중국 내에서 구조변화에 따른 공급과잉과 경쟁과열로 인한 내수시장이 포화되어 과다경쟁이 나타나고 있어, 해외시장을 개척할 동기부여가 충분하며,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과거 시장선도를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에 가전과 섬유제품 등 전통산업에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최근 시장개척을 위해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에도 부동산, 금융 및 보험 등 3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투자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다. 문제점

- 중국기업은 국내시장의 과잉 경쟁회피, 무역장벽의 우회적 돌파, 해외자원 개발 확보, 선진기술과 브랜드 파워 획득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나, 투자가 M&A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음.
 -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는 M&A에 집중되면서, OEM,⁵⁾ ODM,⁶⁾ 기술 라이선싱,⁷⁾ 프랜차이즈,⁸⁾ 수출 및 상품계약과 기술 라이선싱 등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임.
 - 대부분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은 초기 해외진출 시 수출과 기술 라이선싱 등을 통해 현지 시장 경험을 쌓고 핵심역량이 강화된 다음에 직접투자 단계로 진출방식을 고도화시키는 것과 대조됨.

5)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으로 판매회사가 제품 생산회사에 의뢰하여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경우 판매회사가 요구하는 제품상표로 제품을 출고하도록 하는 제조 및 생산하는 방식.

6)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개발력을 갖춘 제조업체가 판매망을 갖춘 유통업체에 상품 또는 재화를 제공하는 생산방식.

7) 소유권과 기타의 기술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사용권의 설정 또는 사업의 경영에 관한 기술의 지도 등을 함으로써 기술보유자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 특허발명과 노하우 등의 기술적 지식을 제공하는 계약방식.

8) 프랜차이즈(franchisor)와 프랜차이지(franchisee) 사이에 설립된 계약으로 프랜차이즈는 자기의 상표, 상호의 사용권이나, 제품의 임대 또는 매매권리 등을 프랜차이지에게 주고 그에 따른 적정의 수수료를 받는 계약방식.

-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현지 시장의 구조적 특성이나 경쟁자 분석, 투자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맹목적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음.
 - 철저한 준비없이 이루어지는 해외투자는 투자재원의 낭비, 영업성과 재무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과잉중복투자의 부작용이 우려됨.

- 기업경영의 핵심자원은 사람인데, 대부분의 중국기업들은 독자적으로 해외진출을 선도할 인재를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진출국의 시장과 문화에 정통한 인력의 미확보는 중국기업의 해외현지화 전략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도 다국적기업을 경영할 만한 인재양성 시스템과 인력시장의 부재 또한 중국기업이 독자적으로 해외에 진출하여 중국식 기업문화를 창조하는 데 문제점으로 지적됨.

- 중국기업의 외국 기업 인수나 합자, 합작 이후, 현지 인적자원 관리, 네트워크 구축, 고객관리 등의 경험부족이 해외직접투자 이후 해외경영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됨.
 - 해외 경영관리 조직이나 시스템의 미흡, 경험부족은 중국기업의 국제화 추진 시 의도했던 선진 기술, 브랜드 파워 흡수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뿐 아니라 부실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초래함.
 - 선진기술, 브랜드 파워 흡수 획득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기업의 본사 차원에서 해외에 기술특허와 상표권을 수출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기술경쟁력을 갖춰야 함.

-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이 부패자금 투기자본의 해외 도피경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이는 연해 지역에 있는 국유기업이나 지방기업 간부들이 해외투자를 명분으로 자본이나 이윤의 일부를 빼돌리거나 불법 부동산 개발, 밀수,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음.
 - 홍콩, 마카오, 케이맨제도 등지에 해외직접투자의 상당부분은 불법자금으로 자금세탁 목적으로 나갔다가 다시 투자명목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부패에 대해 중국금융감독관리 부문들의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공식적 해외직접투자를 막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인 것으로 지적됨.

3. 중국 전문가 평가와 전망

가. 평가

- 베이징대학 경제학원 차오허핑(曹和平) 교수는 과거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와 함께 값싼 노동력을 비교우위로 한 수출이 늘어나 이로 인해 매년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외화를 축적하게 되었다고 평가함.
 - 중국은 이 자금을 국가와 국영기업 금융기관들이 효율적으로 관리, 중국인민은행과 중국금제금융유한공사(CICC)가 외화의 보유와 운용을 담당하여 과도한 외환보유 때문에 생기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외국 기업의 중국투자는 자본수지 유입으로 이어져 자본수지와 경상수지가 흑자를 이루면서 계속적으로 외화가 축적, 2014년 9월 기준 중국의 외환 보유액은 3조 8,877 달러로 일본의 3배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압도적임.

- 칭화대학 공공관리학부 후안강(胡鞍钢) 교수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유럽 국가들의 자산 가치가 하락했지만, 중국은 경제위기의 영향이 뚜렷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진 자산들을 구매하기 좋은 때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함.
 - 브랜드를 키우려면 오랜 세월이 필요한데, 30년 만에 급성장한 중국 경제가 단기간에 세계 일류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중국기업들이 해외의 유명 브랜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함.

- 중국기업들의 해외진출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 선진국 글로벌기업들과 견주기에는 부족함.
 - 중국개별기업의 해외진출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이 혼선을 빚거나 체계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상무부가 해외투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모든 기업의 해외진출을 파악하고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해외투자의 지원과 관련해서 정부기능과 기업역할 등에 적절한 업무분담이 필요하고, 제한된 정책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함.

- 해외직접투자의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원인을 분석, 중국기업들이 해외 투자현지에 관한 자료를 접할 수 있는 정보교류의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함.
 -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흩어져 있는 각종 정보들과 다양한 투자사례들의 객관성 및 유용성을 지닌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정보관리 시스템이 요구되는 시점임.

나. 전망

- 최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 투자항목 등에 있어 이전과 다른 흐름이 관측되고 있으며, 중국기업의 글로벌화 및 해외시장 점유 확대 등을 목표로 추진되는 해외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 중국은 그동안 국내기관투자(QFI)의 프로그램에 따라 기관을 통해서 해외투자를 해왔으나 향후 시행 예정인 중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인 QDII2의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됨.
 - 자국민의 개인투자가 허용되고, 투자 범위 및 규모도 전통산업에서 3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확대되는 변화가 일어남.
- 향후 중국기업들은 IT, 반도체 등 하이테크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국가와 기업들에 대한 투자와 인수합병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표 7. 중국 해외투자 전략상 주요 변화

| 주요 항목 | 이전 | 최근 |
|----------------|---------------------------|-----------------------------------|
| 해외투자 다변화 | 천연가스, 석유 등 자연자원 투자 일변도 | 제조업, 부동산, 이동통신, 의료 산업 등 투자 다변화 |
|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증가 | 국유기업의 자원투자 중심 | 민간기업의 투자 다변화 중심 |
| 자연자원 투자의 질적 변화 | 채굴량 규모 고려 | 산출 자원의 질 고려 |

자료: 「中国海外投资战略转变(图)」 2014, 『21世纪经济报道(广州)』, (10月 17日)

- 시진핑(习近平)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추진과 함께 연계된 지역과 국가에 대한 해외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은 2014년 11월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APEC회의에서 향후 10년간 중국의 해외투자액은 1.25조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15년 말부터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과 관련한 해외직접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함.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 추진의 자금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⁹⁾의 발족, 중국건설은행의 융자 정책 등 실크로드 기금¹⁰⁾ 조성 중에 있음.

9)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이하 AIIB)의 법정자본금 1,000억 달러의 50%를 중국이 출자하고, 나머지 50%는 나머지 참여국이 부담함. 참여 국가는 인도, 파키스탄,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등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아세안(ASEAN) 10개국을 포함한 총 21개국이며, 2015년 6월 말까지 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 말까지 운영을 시작할 계획임.

10) 실크로드 기금 400억 달러는 외환준비금 출자 65%, 중국수출입은행 15%, 中投公司(CICC) 15%, 국가개발은행

- 2014년 10월 「해외투자관리방법(境外投资管理方法)」을 공포, 해외직접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며, 2015년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법규 및 제도 개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과거 해외직접투자 제도인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자를 확대하여 해외직접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대할 전망이다.
- 현재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법규는 각 유관기관들이 제정한 다양한 규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향후 이를 총괄하는 규정인 「중국해외투자법(中国境外投资法)」 제정을 추진할 예정임.

<참고자료>

- 『2013年度中国对外直接投资统计公报』 2014. 09. 「中国统计出版社」.
- 『由“生产型”趋向“消费型”』 2014. 05. 「全球化」.
- 『新形势下我国境外直接投资战略』 2014. 04. 「经贸研究」.
- 『基于历史视角的中国FDI引进政策演变』 2014. 04. 「经济研究参考」.
- 『实施“走出去”战略金融政策措施探讨』 2005. 01. 「华北金融」.
- 『对我国企业境外投资问题的思考』 2011. 01. 「国际贸易」.
- 『我国个人境外直接投资政策及路径选择研究』 2014. 02. 「金融发展评论」.
- 『我国境外投资促进体系的制度演进分析』 2012. 03. 「理论经济研究」.
- 『中国海外直接投资现状研究』 2010. 07. 「东方企业文化·国家与城市竞争」.
- 『我国企业境外投资风险与控制』 2013. 06. 「理论经济研究」.
- 『后金融危机时代中国民营企业境外直接投资研究』 2013. 04. 「区域金融研究」.
- 『改革开放以来外商直接投资在我国的真实效应分析』 2010. 10. 「理论经济研究」.
- 『中国海外投资战略转变(图)』 2014. 「21世纪经济报道(广州)」. (10月 17日).

자료 정리: 중국인민대학 경제학원 박사과정 한동균(handongjun@hotmail.co.kr)

5% 출자로 구성되며, 중국인민은행이 관리하게 되며, 금년 연말 내에 정식 운영을 시작할 계획임. 또한 실크로드 기금으로 도로건설, 연해국가의 기초인프라 건설, 자원개발, 산업 및 금융협력 소통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용자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는 향후 아시아 역외,내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질 전망이다.